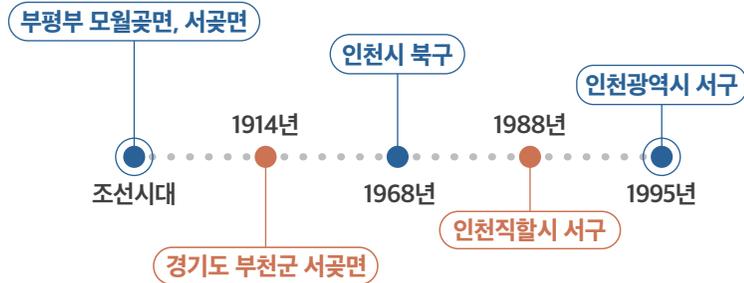


부평부 서쪽의 곳, 모월곳과 석곳이 합하여 서곳이 되다.



조선시대 서곶 지역은 부평부 석곳(石串)면과 모월곳(毛月串)면에 해당한다. '곶'이란 바다로 길게 뻗은 육지의 끝부분을 말하는데 석곳은 돌이 많은 곳, 모월곳은 반달같이 생긴 기다란 지형에 지맥이 터럭처럼 바다로 뻗어내린 곳이란 뜻이다. 1914년 지방조직 통폐합에 따라 두 면이 합병되어 부천군 서곶면이 되었다. 부평도호부의 서쪽에 위치해서 붙인 이름이다. 서곶면은 1968년 구제 실시 이후 인천시 복구에 속하다 1988년 분구되며 인천직할시 서구가 되었다.



<동여도> 중 인천과 부평 부분 출처 : 규장각원문검색 서비스

으뜸가는 마을, 검단

검단면은 경기도 김포군에 속해있었으나 1995년 인천직할시가 광역시로 승격할 때 서구에 편입되었다. 검단(黔丹)의 '검'은 '신(神)' 또는 '왕(王)'을 뜻하는 고어 '靑'에서 유래 했으니 곧 '제사장이 사는 마을, 으뜸가는 마을'이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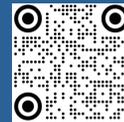


찾아오시는 길

- 버스**
 간선버스 1번, 103번, 12번, 13번, 2-1번, 202번, 3-2번, 300번, 42번, 44번, 47번, 71번, 80번 (가정역)
 지 선 버 스 584번, 591번, 594번 (가정역)
 광 역 버 스 1000번, 9300번, M6628번 (가정역)

지하철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하차 (4번 출구)

A.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쓰리엠타워 7층
 T. 032-582-4341
 F. 0502-582-4742
 H. www.insc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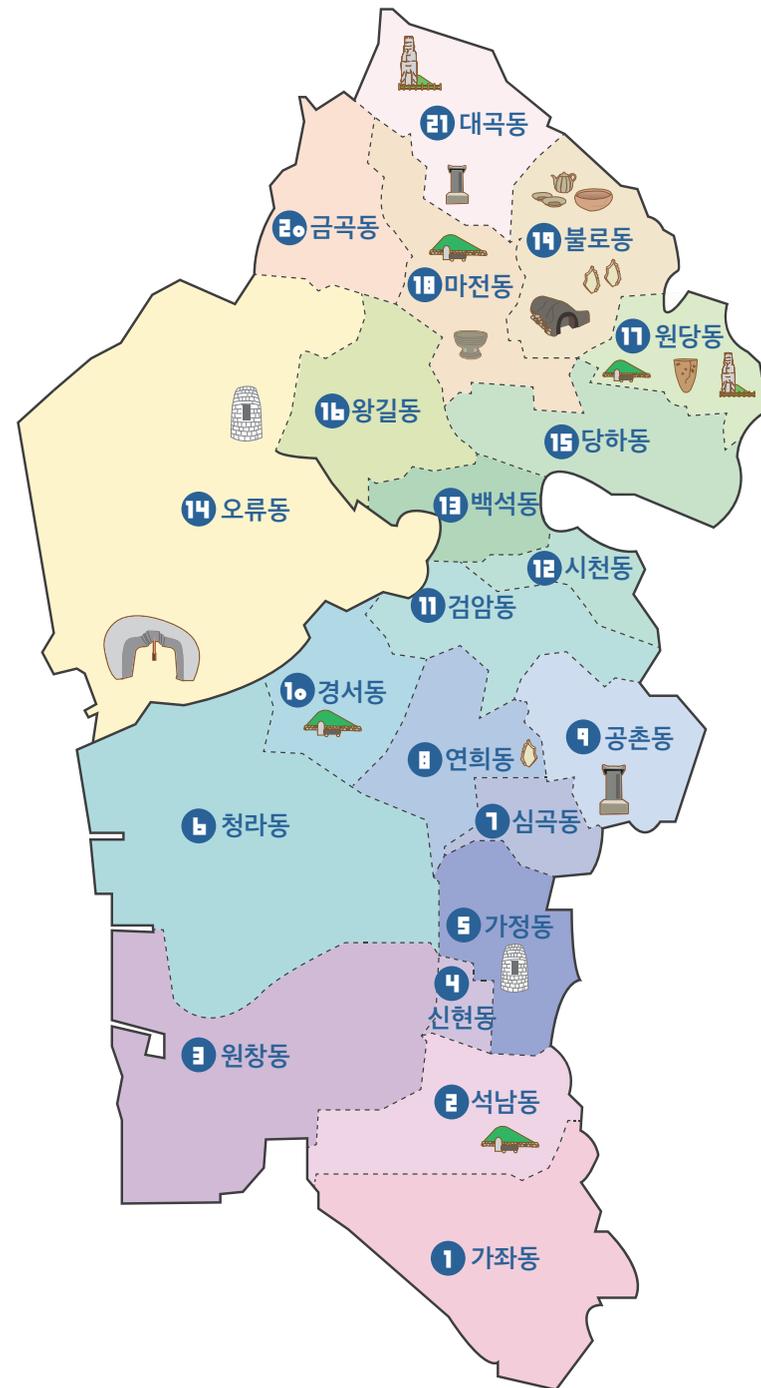
한 / 눈 / 에 / 서 / 구 6

인천 서구의
지역
유래

서구 법정동 이름의 유래

- 1 맑은 시내에 가재가 많이 살았던 마을, **가좌동(佳佐洞)**
조선시대 가재가 많이 살던 마을이라 '가재울'이라 불리던 것이 오늘날 '가좌'가 됨.
- 2 석곳의 남쪽에 있는 마을, **석남동(石南洞)**
과거 해안가에 위치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번지기나루', '고잔' 등의 지명이 남아있음.
- 3 정부 양곡을 쌓아두는 창고가 있던 마을, **원창동(元倉洞)**
원래는 부평도호부 소속의 포리지역에 정부 양곡을 쌓아두는 창고가 있어서 생긴 이름으로 추정.
- 4 새로운(新) 고개(峴)를 만들어, **신현동(新峴洞)**
원창동의 세곡을 한양으로 옮기기 위해 새로 고개를 뚫어 '새고개(새오개)'라 하던 것이 한자식 '신현동'으로 변경. 일설에는 새우개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서쪽 도당산을 주산으로 삼태안 같이 생긴 동향마을로 어디서 가나 고개를 넘게 되어 있으며 그 고개가 셋이 있어 '세고개'로 불려온 것이 새우개로 변음된 것이라고 함.
- 5 '가정(佳亭)'이란 정자가 있는 마을, **가정동(佳亭洞)**
조선의 개국공신 조반이 '가정'이란 별장을 세운 것에서 유래.
- 6 섬을 매립하여 생긴 마을, **청라동(靑蘿洞)**
푸른 넝쿨과 관목들이 많아 푸른 섬이었던 청라도를 매립하여 생긴 마을.
- 7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 **심곡동(深谷洞)**
천마산 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마을이라 '기피울'이라 함.
- 8 여자들이 모여 비단이나 베를 만들었던 마을, **연희동(蓮喜洞)**
신라시대부터 여자들이 비단이나 베를 짰던 곳으로 원래 '여희(女姬)'라고 하던 것이 '연희'로 바뀌었다고 함.
- 9 마을이 '公(공)'자와 같이 생겨 **공촌동(公村洞)**
같은 능선의 동, 서에 마을이 들어앉아 계양산 정상에서 보면 '公(공)'자같이 보여 '공촌리'로 칭함.
- 10 경명현 서쪽에 있는 마을, **경서동(景西洞)**
경명현은 계양산과 천마산 사이의 고개로 '징맹이고개'라고도 칭함.
- 11 검바위가 있는 마을, **검암동(黔岩洞)**
마을에 크고 검은 바위가 있어서 유래한 이름. 크고 검은 바위는 현재 서인천고등학교 경내에 있다고 함.

인천 서구 법정동 지도



※ 실제 위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2 계양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시작된 마을, **시천동(始川洞)**
시내가 시작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계양산 서쪽에서 시작되는 큰 계곡을 끼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
- 13 흰돌 마을, **백석동(白石洞)**
마을 뒷산인 한뢰산 기슭에 큰 흰돌이 있어 붙여진 이름. 하지만 재래지명 '한들'의 해석 오류라고 보기도 함.
- 14 오동나무(梧)와 버드나무(柳)가 많아서, **오류동(梧柳洞)**
이 외에도 마을 북쪽 넓은 들에 오리가 많아 '오리골'이라 했다는 설이 있음.
- 15 당의 아래에 있는 마을, **당하동(堂下洞)**
원당동의 아래에 위치해서 붙인 이름.
- 16 대사가 지어준 이름, **왕길동(旺吉洞)**
본래 임금 왕(王)이었으나, 조선시대 어느 대사가 마을 이름을 왕성할 왕(旺), 길할 길(吉)로 해야 마을에 덕(德)이 있고 생활이 풍요로울 것이라고 하자 마을 이름을 변경함.
- 17 으뜸이 되는 당이 있는 마을, **원당동(元堂洞)**
원당(元堂)이란 '신당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며, 마을 서북편에 있는 옥계봉이 신당이 있던 당산으로 추정됨.
- 18 마를 많이 재배했던 마을, **마전동(麻田洞)**
예전부터 삼(麻)을 많이 심어서 '삼밭지(삼밭이)'라 했는데 한자식 표기인 '마전'으로 변경.
- 19 앞산에 불로초(不老草)가 있다 소문난 마을, **불로동(不老洞)**
전설에 따르면 마을 앞산인 만수산(萬壽山)에서 어느 노인이 산삼과 약초를 채취하여 먹고 장수했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만수산의 불로초(不老草)를 캐기 위하여 모여들었고 그때부터 이 마을을 '불로동(不老洞)'이라 불렀다고 함.
- 20 금과 철을 캐던 마을, **금곡동(金谷洞)**
광물이 많이 매장되었다 하여 옛날에는 '쇠골'이라 칭하였으며, 예로부터 금·은·동을 채광하여 1950년대 말까지 철을 캐으나 폐광됨.
- 21 큰 골짜기를 품은 마을, **대곡동(大谷洞)**
가현산 큰 골짜기에 자리 잡아 붙여진 이름이며, 가현산에는 70기가 넘는 고인돌이 남아있어 청동기시대 큰 정치세력이 거주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